

신명기 4장 19절의 해석과 번역

이수만*

1. 문제 제기

신명기 4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숭배를 금하는 모세의 설교 내용인데 그 가운데 19절은 구체적으로 해, 달, 별 등 천체를 숭배하지 말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개역」: 또 두렵건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일월 성신,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여기서 해석과 번역상에 문제가 되는 구문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

אשר חלק יהוה אלהיך אתם לכל העמים תחת כל השמים

아세르 할라크 아도나이(YHWH) 엘로헤카 오탐 레콜 하암밈 탁핫 콜 하샤마임)이다. 이 구문은 통사적으로 ‘관계절’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관계절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개역」은 히브리어 원문의 뜻을 문자 그대로 번역했다. 이 번역은 헬라어 「LXX」,¹⁾ 아람어 「탈굼옹켈로스」,²⁾ 영어 「KJV」, 「RSV」, 「NRSV」, 「NASB」의 번역과 기본적으로 같다. 「RSV」를 예로 보면,

* 위클리프성경번역선교회(GBT) 선교사, 구약학.

1) 「LXX」 신 4:19 “...*ha apeneime Kurios ho Theos sou auta pasi tois ethnesi tois hupokatō tou ouranou*.” (영문 번역: ...which the Lord your God allotted to all the nations under the heaven).

2) I. Drazin의 「탈굼」 영문 번역은 약간의 의역을 함으로서 원문의 의미를 바꾸는 결과를 가져왔다. “—(namely) these which the Lord your God prepared for other people under the whole heaven—”에서 “other”는 원문에는 있지 않은 말이다 (원문: *dzmyn yy 'lhk ythwn lkl 'mmy' dtchwt kl shmy*). 「탈굼 옹켈로스」는 기본적으로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옮겼다고 해야할 것이다. I. Drazin, *Targum Onkelos to Deuteronomy An English Translation of the Text With Analysis and Commentary* (Ktav Publishing House, 1982), pp. 88f.

「RSV」: things which the LORD your God has allotted to all the peoples under the whole heaven.

한편, 근래에 번역된 역본들은 대부분 이 전통적 해석 및 번역과는 다른 해석과 번역을 시도하고 있다. 몇 가지 번역을 예로 들어 보자.

「표준새번역」: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천체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나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³⁾

「TEV」: The LORD your God has given these to all other peoples for them to worship.

「개역」 등 전통적인 번역문과 근래의 번역문들을 비교에서 차이점은, 근래의 번역본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에게 천체를 숭배하도록 정해 주셨다’고 본문을 해석한다는 점이다. 우선 두 구문이 대조된다.

- (1) “천하 만민[=모든 민족] —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민족들”
- (2) “분정하신 것 — “섬기라고 주신 것”

이 차이점을 좀더 자세히 볼 때 네 가지의 질문을 제기하게 된다.

- (1) 콜 하암뫼(kol ha-‘amim) ‘만민, 모든 민족’의 뜻은?
 - (2) 동사 할라크(chalag) ‘분정하다, 나누어주다’의 뜻은?
 - (3) 관계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아세르 할라크 YHWH 엘로헤카 오탐 레콜 하암뫼 탁핫 콜 하샤마임)의 기능과 용법은 무엇인가?
 - (4) 나아가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과연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에게 천체 숭배를 허용하셨는가?’
- 이 질문들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자.

2. 콜 하암뫼(כל העמים, kol ha-‘amim) ‘만민, 모든 민족’의 뜻

3) 참고로 그 외의 한글 번역본들을 보자. 「공동번역 성서」: “그런 것들은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만천하 다른 민족들에게 주어 섬기게 하신 것들이다.” 「현대어성경」: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세상의 다른 민족들에게나 천체들에게 미혹되어 그것들을 경배하고 섬기게 하셨습니다.” 「현대인의성경」: “그런 것들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 세상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현대인의 성경」은 ‘하나님이 천체 숭배를 이방인에게 정해 주셨다’는 의미로 본문을 해석하지 않고 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명사구 *콜 하암밈*(정관사 *하*+*암밈*)은 어떤 뜻으로 사용되는가? ‘모든 민족(all the peoples)’으로 인가? 아니면 ‘다른 모든 민족(all the other peoples)’인가? 더 좁혀서, 본문에서 *암*(*am*, ‘*amim*의 단수)이 ‘민족(people)’을 뜻하는가, ‘다른 민족(other people)’을 뜻하는가? 또는 분석적으로 단어 *암* 속에 의미 요소 ‘다른’이 포함되어 있는가?

성경 히브리어에는 ‘민족’, ‘나라’, ‘백성’ 등 ‘한 지역에 함께 사는 사람들의 집단’을 지칭하는 어휘가 몇 있다. *고이*(*goy*, ‘nation, gentile’, 556회), *암*(*am*, ‘people, nation’, 1850회), *레움*(*le’om*, ‘people, nation, 35회), *이*(*iy*, ‘island, coastland’, 36회), *움마*(*umma*, ‘clan, nation’, 11회)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고이*와 *암*을 자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남은 세 단어 가운데 *레움*은 시가서에서 *고이*나 *암*과 평행대구를 이루는 동의어로 주로 사용되었다. *고이*는 창세기 10:32에 사용된 바와 같이 ‘공통 조상에 의해 구분지어지는 민족’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개념이다. 한 민족 단위로서 이스라엘도 *고이*로 표현되었으나, *고이*는 보통 복수형 *고임*(*goyim*)으로서 ‘선민 이스라엘과 대조되는 형편에 있는 다른 민족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구약에서 사용되었다. *암*은 좀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민족 단위’란 기본적 의미로 쓰이기도 했으나, 거기에서 정치적 단위, 또는 신앙공동체란 의미가 더해져서 쓰이기도 한다. 특히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 *암*은 “여호와와의 *암*”(“*am YHWH*, ‘여호와와의 백성, the people of the LORD’), “나의 *암*”(“*ammi*, ‘나의 백성⁴⁾, my people’)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⁵⁾

구약에서 *암*은 이스라엘 민족과 대조되는 ‘다른 민족’이란 의미보다는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는 민족/백성’이란 의미로 더 자주 쓰였다. 신명기 4:19에는 *콜 하암밈*이란 명사구로 사용되었다. 이 말은 과연 구약에서 이방 민족들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는가? 여러 번역본들이 ‘다른, other(영), autre(불), andere(독)’를 추가하여 사용했는데 이는 정당한가? 구약에서 명사구 *콜 하암밈*은 44회 정도 나오는데⁶⁾ 그 용법을 살펴보면 ‘다른’의 추가는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가

4) 한글 번역 성경들은 *고이*, *암*, *레움*, *움마*를 번역함에 있어 ‘나라’, ‘백성’, ‘민족’ 등 용어를 자주 혼합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기계적인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는 없겠으나, 예컨대 *고이*는 (‘LXX’ 헬라어는 *ethnos*) ‘민족’으로, *암*은 (‘LXX’ 헬라어는 *laos*) ‘백성’으로 번역될 수 있을 것이다.

5) *암*, *고이*, *레움* 등 용어 해설은 TWOT (R.L. Harris, G.J. Archer, Jr., B.K. Waltke, *Theological Wordbook of the Old Testament*, Moody Press, 1980) vol. 2, p. 676, 그리고 NIDOTTE (W.A. VanGemeren (e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 Exegesis*, Paternoster Press, 1996) vol 4, pp. 966f를 참고할 수 있다.

6) A. Even-Shoshan, *A New Concordance of the Old Testament* (Jerusalem: Kiryat-Sefer, 1993), p. 888.

령, 출애굽기 19:5 “너희는 열국(콜 하암밈)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신명기 7:7 “너희는 모든 민족(콜 하암밈) 중에 가장 적으니라” 했을 때 이스라엘도 이 “열국/모든 민족” 가운데 포함되었던 것이 분명하다. 시편에서 콜 하암밈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포함한 세계 모든 민족들을 의미한다. 시편 97:6 「표준새번역」 “하늘은 그의 의로우심을 선포하고 만 백성(콜 하암밈)은 그의 영광을 본다.”⁷⁾ 한글 번역본이든 다른 언어로 된 번역이든 구약의 40여회 콜 하암밈 구문에서 “다른 모든 백성들”로 번역한 예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명기 4:19 구문에서만 예외적으로 ‘다른’을 추가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려운 해석이라 하겠다. 여기서도 콜 하암밈은 ‘선민 이스라엘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하나님의 관심과 보살핌의 대상이 되는 백성들/민족들’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이치에 맞다.

더욱이 본문에서 콜 하암밈이 들어 있는 명사구 전체 “천하 만민(콜 하암밈 탁 핫 콜 하사마임)”⁸⁾은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표현으로서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한 지구상의(=하늘 아래의) 모든 민족들을 의미한다 하겠다.

3. 동사 할라크(חָלַק, chalaq) ‘분정하다, 나누어주다’의 뜻

다음, 동사 할라크의 의미와 용법을 살펴보자. 할라크는 토지 등 재산이나 전리품, 음식, 의복 같은 것들을 ‘나누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 헬레크(chelaq)는 ‘(토지, 노략물, 음식 등의) 몫, 분깃(lot, portion, share)’을 의미한다.⁹⁾ 할당된 몫을 받은 사람은 그 헬레크의 주인이 되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원하는 대로 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히브리어 동사 할라크는 이중타동사이므로 3개의 의미론적 역할(또는 valency)을 갖는다. (a) 통사적 주어로 표현되는 동작주(agent), (b) 직접목적어로 표현되는 수동자(patient), (c) 사격(oblique) 형태로 표현되는 수혜자이다. 신 4:19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할라크 아도나이 엘로헤카 오탐 레콜 하암밈 탁 핫 콜 하사마임)” 구문에서, (a)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b)는 “일월 성신, 하늘 위의 군중”, (c)는 “천하 만민” 이다. 레콜 하암밈은 ‘천하 만민을 위하여’ 또는 ‘천하 만민에게’로 번역된다. 성경 히브리어에서의 할라크의 정

7) 또한 시 47:2, 49:2, 96:3, 99:2 참조.

8) 좀더 정확한 번역은 “온천하(만천하) 모든 백성들”.

9) “chalaq”, “chelaq”에 대한 설명은 L. Koehler and W. Baumgartner,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E.J. Brill, 1994)와 TWOT, NIDOTTE 등에서.

상적인 의미론적 용법을 따른다면, (c) '천하만민'은 (b) '일월성신'을 (a) '여호와'께서 제공(/할당)해준 '(재산의) 몫'으로 스스로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b)가 (c)를 사용한다는 것은 의미론적 혼란 또는 역할 갈등을 야기시킨다. 가령, (a) 원정 군대의 왕이 외국을 정복한 후 (b) 그 곳의 노예를 (c) 자신의 군사에게 나누어주었다(할라크)고 할 경우, (c) 군사가 (b) 노예를 마음대로 부려먹는 것이다. 역으로, (b) 노예가 (c) 정복자 군사로부터 섬김을 받는 일은 상상될 수 없는 것이다. 근래 번역본들의 신명기 4장 19절 번역문은 히브리어 동사 할라크에 포함되는 세 역할 사이에 의미론적 혼란을 불러오는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적절한 해석과 번역이 아니다.

4. 관계절의 기능과 용법

문제의 구문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아셰르 할라크 아도나이 엘로헤카 오탐 레콜 하암뎨 탁핫 콜 하사마임)”은 형태적으로 하나의 관계절이다. 이 관계절은 관계사 아셰르(asher)에 의해 인도되며 선행사는 이 명사구의 주요어인 “일월 성신, 하늘 위의 군중”이고, 관계절은 주요어를 꾸며주는 보조 설명의 기능을 하고 있다. 「개역」은 이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본문 히브리어의 구조를 보면, 주요어와 관계절이 바로 붙어있지 않은 형태로 되어 있다. 이를 외위치 관계절이라 한다. 즉, 먼저 (a) 주요어 “일월 성신, 곧 하늘 위의 군중(을)”이 나오고, (b) 그 [주절-관계절] 사이에 세 동작 —(b1) 미혹하여, (b2) 그것에 경배하며, (b3) 섬길까”— 들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 (c) 관계절이 나오는 순서로 되어 있다.

(a) 에트 하세메쉬 웨에트 하야레아크 웨에트 하코카뎨 콜제바 하사마임
해를 그리고-달을 그리고 - 별들을 모든 하늘의 군대,

(b1) 웨니다크타

그리고 (너희가) 미혹된다

(b2) 웨하쉬타카위타 라헬

그리고 (너희가) 경배한다 그것들에게

(b3) 와에베드탐

그리고 그것들을 섬긴다

(c) 아셰르 할라크 YHWH 엘로헤카 오탐 레콜 하암뎨 탁핫 콜 하사마임.

(관계사)분정하셨다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그것들을 모든 민족에게 모든-하늘 아래.

만약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천체 숭배를 하도록 정하고 허락하셨다면, 그같이 엄청난 내용을 이처럼 참고적인 언급의 외위치 관계절 형태로 전해주시겠습니까? 그것도 성경 전체에서 오직 이 본문에서만 말씀하시고 다른 여러 곳에서는 천체 숭배를 그토록 반대하실까? 아무래도 무리한 해석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관계절이 통사적으로 외위치 구조를 띄고 있기에, 현대의 여러 번역들은 새로운 독립 문장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형식적으로 가능한 번역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위 관계절은 관계사 *아세르*의 용법에 따라 이유의 부사절(reason clauses)로 해석될 수도 있다. *아세르*는 하나의 불변사로서 ‘왜냐하면(for, because)’의 의미를 갖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구문을 이유절로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의미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곧, “그 까닭은 그것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셨기 때문이다” 또는, “그 까닭은 그것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천하 모든 백성들에게 분깃으로 나누어주셨기 때문이다”로 번역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유의 부사절로 보기보다는 관계절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탈굼웅켈로스」의 아람어역은 관계사 *테/디(de/di)*를 썼으며 (이 경우, 관계사로서의 역할은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사(subordinator, ‘왜냐하면’)로서의 역할과 사실상 구별이 어렵다.), 「칠십인역(LXX)」의 경우 관계대명사 *ha* ‘which’를 사용했기에 분명히 관계절로 해석된다.

5. 이방 민족들에게 천체 숭배가 허용되었는가?

지금까지의 어휘 및 통사적 의미 검토에 따르면, 신명기 4:19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에게 천체 숭배를 정하고 허용하셨다는 해석은 성경 히브리어의 통사적, 의미론적 용법을 무시한 해석임이 드러났다. 이제는 주경학자들의 본문 해석을 살펴보기로 하자. 과연 이방 민족들에게 천체 숭배가 허용되었는가?

주경학자들의 여러 견해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1) 이방인들에게 천체 숭배를 정해 주셨다는 견해, 그리고 (2) 이스라엘 백성에게 천체 숭배를 금하는 내용이며 이방인에게 천체 숭배를 정해 주셨다는 내용은 본문에 들어 있

지 않다는 견해.

5.1. 이방인에게 천체 숭배가 분정되었다는 해석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천체 숭배를 정해 주셨다는 견해를 보자. 델리치(F. Delitzsch), 드라이버(S.R. Driver), 폰 라트(G. von Rad), 크레지(P.C. Craigie), 바인펠트(M. Weinfeld), 티가이(J.H. Tigay), 카이른스(I. Cairns) 같은 주석가들이다. 이들은 *콜 하암뫼*를 '다른 모든 백성들'로 해석을 내리는 경우가 많으며, 동사 *할라크*가 가지는 세 가지 의미론적 역할을 혼동하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또한 동사 *할라크* '분정하다, 나누어주다, 할당하다'의 의미를 '경배하다, 섬기다, 예배하다'로 확장시키고 있다. 즉, '분정하셨다/나누어주셨다'를 '섬기라고 주셨다'(「표준 새번역」), '경배하고 섬기게 하셨다'(현대어성경), 또는 '예배하라고 주셨다'(TEV: "has given ... to worship")로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 해석은 사실 오랜 해석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치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에 든 다섯 학자 이전으로 올라가 보면 그 뿌리가 2000여년 전 일부 유대교 학자들의 본문 이해에 도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천사 숭배와 이스라엘 민족의 세계 속에서의 위치와 역할을 배타적 특수주의로 보는 견해와 깊은 관련이 있다. 여기서 '일부 유대교 학자들'이라 함은 유대교 학자들 가운데서도 의견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다.

유대교 학자 바인펠트는 *할라크* YHWH *엘로헤카* *오탐 레 콜 하암뫼* *탁핫 콜 하 사마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것(천체들)들을 온천하 모든 백성들에게 나누어주셨다'는 본문을 "하나님이 친히 열방들에게 천체들을 예배의 대상으로 정해 주셨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이어서 "별들은 신적 존재로 간주되었다"라고 주장한다. 즉, '별 = 신적 존재(천사)'라는 등식을 제시하고, 별에 대한 예배가 신적 존재에 대한 예배이며, 하나님이 직접 천체들을 이방 민족들에게 예배의 대상으로 지정해 주셨다는 주장이다. 그가 그 근거로 증거 구절 몇을 제시하는 가운데 신명기 32:8-9의 헬라이어 「LXX」 및 「사해사본」의 해석을 제시한다.¹⁰⁾

「개역」 8절: "지극히 높으신 자(*Elyon*)가 열국(*goyim*)의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bney adam*)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bney yisra'el*)의 수효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9절: 여호와와 분깃(*cheleq*)은 자기 백성이라

10) M. Weinfeld, *Deuteronomy 1-11: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he Anchor Bible* (Doubleday, 1991), p. 206.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nachla*)이로다”

“이스라엘 자손”의 「LXX」 번역은 *angelōn theou* ‘하나님의 천사들’이고 「사해사본」은 *bny ʾl* ‘하나님의 아들들/ 신적 존재들’인데, 이는 별들이 신적 존재와 동일시 되는 욥 38:7 “그 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에 나타난 내용과 같다고 바인펠트는 주장한다. 이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들” 곧 “천사들”이 민족들을 관할한다는 유대교 묵시문서 회년서와 외경 벤시라서(또는 ‘지혜서’)를 인용한다.¹¹⁾ 이 문서들은 유대 민족주의적 견해를 가진 저자들에 의해 기록된 것이다.¹²⁾

두 가지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우상숭배(천체 숭배를 포함하여)를 이방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지정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같은 놀라운 내용(신 4:19)을, 전통적 히브리어 본문(마소라 본문)에서가 아닌 「칠십인역」, 「사해사본」 또는 유대 민족주의에 편향된 묵시문서들에 근거하여 확정할 수 있는가? 이같은 해석은 일부 원하는 이들이 따른다 하더라도 유대인이 아닌 다수가 따를 해석은 되지 못할 것이다. 「마소라 본문」을 벗어나 「칠십인역」이나 다른 사본의 이독을 따를 근거가 충분히 정당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성경은 모든 민족(*goyim*)(또는 인류(*bney adam*))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행위가 기록된 책이다. 그 구원의 방법은 ‘유대인을 통한 모든 민족의 구원’이라 하겠는데, 그것은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분류되고 인도되는 방법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신명기 32:8-9 본문이 알려주고 있고, 그 구원 사역의 결과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그들의 인도를 받는 이방 민족들도 구원에 참여하게 되므로 신명기 32:43 “모든 나라들(*goyim*)아, 주의 백성(*am*)과 함께 즐거워하라”(「표준새번역」)로 나타나는 것이다.¹³⁾

11) “he has many peoples ... and he made them ruled by spirits ... and Israel was not ruled by any spirit or angel, he himself rules them” (Jubilees 15:31-32); “for every nation he raised a prince but the portion of YHWH is Israel (alone)” (Ben Sira 17:17).

12) Book of Jubilees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 “The book was written between 135 B.C. and c. 96 B.C. by a writer of nationalist and rigoristic outlook, who deplored contemporary laxity.” F.L. Cross (ed.), *The Oxford Dictionary of the Christian Church* (Oxford University Press, 1958), p. 747.

13) 신 32:43에서 「사해사본」과 「칠십인역」은 「마소라본문」과는 다소 다른 독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마소라본문」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마소라본문」 “*harninu goyim 'ammō*” 「개역」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NKJV」 “Rejoice, O Gentiles, with His people;” 「NIV」 “Rejoice, O nations, with his people;”

본문은 신약 롬 15:10에서 다음과 같이 인용되었다.

둘째, ‘별 = 신적 존재(천사)’라는 등식을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욥기 38:7은 이 등식에 무게를 실어준다. 그런데, 여기서 ‘별’이라 함은 금성, 화성, 북극성 등 밤하늘에 빛나는 물체들을 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가진 하늘의 존재들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다. ‘빛나고 존귀스런 (지성과 의지를 가진) 존재, 특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이’를 ‘별’로 표현한 것이다. 이는 민수기 24:17에서 선명히 이해될 수 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며”

“별”과 “홀(scepter, 왕권의 상징)은 이 평행대구로서 ‘왕의 권세를 가진 지도자’라는 수사학적 의미를 동일하게 지남을 알 수 있다. (“야곱//이스라엘”, “나오며//일어나며”도 같은 의미라 할 수 있다.) 이 구절을 보고 야곱에게서 화성, 금성 또는 북극성 같은 거대한 발광체가 나오리라 해석하는 학자는 없을 것으로 안다.

‘별’이란 용어를 보고 ‘천체 숭배’로 해석하는 것은, 해, 달, 별 등 천체를 시적 표현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 인격을 가진 존재로 보던 고대나 중세의 우주관에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이 몰활론적 우주관은 제한된 정보를 가진 옛 사람들의 견해이지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다. 신명기 32:8의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 신적 존재들’로 이해하면서, 이방 민족들에게 각기 자기 민족을 지배하는 천사를 지정하고 그에게 경배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이 또한 천사 숭배와 관련된 유대 해석자들의 추측과 유대 민족 특수주의에 근거한 해석일 뿐, 본문의 칠십인역이나 사해 사본 이독과 마찬가지로 정론으로 받기에는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또한, 바인펠트는 그의 신명기 주석에서(p. 206) *cheleq*와 *nachla*의 의미의 차이를 분명히 하지 않은 채(신 4:19-20, 32:8-9), 신명기 4:20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의 기업(*nachla*)’으로 설명된 점을 들어 신명기 4장 19절에서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이 천체들의 몫(*cheleq*)으로 넘기셨다’는 자신의 주장을 펴고 있다. “하나님이 친히 열방들에게 천체들을 예배의 대상으로 지정해주셨다 ... 다른 민족의 몫과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의 몫은 다음절(20절)에 표현되어 있다.” *cheleq*은 *chalaq*에서 파생된 명사로서 ‘나누어진 몫, 분깃’을 의미하고, *nachla*는 *nachal*에서 파생된 명사로서 ‘유산, 재산, 영구적인 (가족) 소유물(*inheritance, heritage, property,*

「헬라어신약」 “*euphranêthê, ethnê, meta tou laou autou*” 「개역」 “열방들이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표준새번역」 “이방 사람들이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NKJV」 “Rejoice, O Gentiles, with His people!” 「NIV」 “Rejoice, O Gentiles, with his people.”

permanent (family) possession)’을 의미한다. *cheleq*와 *nachla*는 둘 다 비슷한 의미 영역 속에 있지만 그 의미는 분명히 구별된다. 어떤 *cheleq* ‘몫, 분깃’이 그 주인 (과 그의 가족)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질 때 *nachla*로 간주된다. 바인펠트의 주장은 히브리어 용법에 대한 두 가지의 혼동, 불분명한 이해를 토대로 하여 수립되어 있다. (1) *cheleq*과 *nachla*의 차이에 대한 설명의 부족 또는 불분명한 해석, (2) 동사 *chalaq*의 의미론적 역할에 대한 혼동이다. *chalaq*에 대한 이해는 위 3.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텔리치, 드라이버, 폰 라트, 크레지, 카이른스(I. Cairns) 같은 주석가들은 위의 전통적 유대인 학자들의 견해를 따르는 것 그 이상이 아니다. 드라이버의 주장 가운데서 한 가지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는 신명기 29:26(히브리어 본문은 25절) “[여호와께서] 그들(이스라엘)에게 분정하지 않은 다른 신들 (엘로힘 아세르 ... 로 할라크 라헬)” 구문이 신명기 4:19의 본문과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이 다른 민족에게는 다른 신들을 분정하셨다’라는 해석을 추론해 내어 4장 19절 해석의 근거로 삼고 있다.¹⁴⁾ 그러나 29장 전체의 문맥과 내용을 살펴보면 본문이 ‘이방 민족에게는 다른 신들을 주시고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 식의 대조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다른 민족들이 다른 신이나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다른 민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현실을 지적하는 내용과 더불어 전달되고 있다.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심에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계시가 없기에 부패해진 결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방 민족들은 영적으로 이미 망한 상태이고 하나님은 그에 대해 많이 개입하지 않으신다.) 따라서 신명기 29:26을 근거로 해서 이방 민족에게 다른 신이나 천체 숭배를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다고 4장 19절을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사실, 본문 신명기 4:19의 해석은 여러 주경 학자들에게 어려운 과제이다. 그에 대해 라이트는 이렇게 말한다.

“이 구절 하반부는 여러 사람에게 혼란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종교 다원성에 대한 현대의 논쟁에 주제가 되는 여러 본문 중의 하나이다. 이방민족 가운데서 행해지는 해와 달과 별에 대한 숭배는 직접 야웨에 의해 지정되었다고 이 구절이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 만일 이 구절이 실제 그런 뜻을 지니고 있

14) S.R. Driver,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Deuteronomy*, Third Edition (T. & T. Clark, 1902), pp. 70f.

다면 구약성경 다른 부분에서 이방민족들의 우상숭배를 거의 보편적으로 정죄하는 내용과 어떻게 함께 설수 있겠는가?”¹⁵⁾

구약 전반에서 이방 민족들의 우상숭배를 책망하는 것과 이 본문의 해석을 조화시키는데 있어 폰 라트도 어려움을 표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별을 섬기도록 정해 주셨다고 주석하면서 그는 이같이 말한다.

“이스라엘에게 우상숭배 금지를 비타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이방 민족들에게 우상숭배를 허용하는 것과 뚜렷이 대조된다. 구약의 다른 어느 부분에서도 야웨께서 직접 별들을 이방 민족들에게 그들의 예배를 위해 지정하셨다는 개념이 이처럼 관용적인 마음으로 표현된 적이 없다.”¹⁶⁾

5.2. 이방인에게 천체 숭배가 분정된 적이 없다는 해석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천체 숭배를 금하는 것이며 또한 이방인에게 천체 숭배를 정해 주셨다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는 견해를 가진 주석가들로는 랍비 라쉬(Rashi)와 랍비 히르쉬(S.R. Hirsch), 메릴(E.H. Merrill), 마이스(A.D.H. Mayes), 라이트(C.J.H. Wright) 등을 들 수 있다.

랍비 히르쉬는 그의 신명기 4:19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asher chalaq YHWH ‘eloheycha ...* : 이 구절은 *‘asher chalaq lahem YHWH ‘eloheycha ‘et kol ha’amim...*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럴 경우,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민족들 위해 군림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뜻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바는 그 정반대의 뜻이다. 그렇다, 그것들은 세계의 민족들에게 몫으로 주신 것이다. 민족들은 해와 달과 천체들이 지닌 물리적 힘을 그들 개인과 민족의 삶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혜롭게 응용하여 사용하도록 지시받았다.”¹⁷⁾

히르쉬는 동사 *chalaq*의 의미론적 역할 문제를 논점으로 삼으면서 수동자와 수혜자의 역할을 바꿀 때 일어나는 혼란을 경고하고 있다. 본문은 *‘asher chalaq YHWH ‘eloheycha...* “하나님께서 천체를 모든 백성에게 주셨다”는 내용이지 *‘asher chalaq lahem YHWH ‘eloheycha ‘et kol ha’amim...*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천체들에게 주셨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말이다. 해, 달, 별 등 모든 천체는 인간의 생활을 위해, 인간을 섬기라고 주셨다는 설명이다.

15) C.J.H. Wright, *New International Biblical Commentary Deuteronomy* (Hendrickson, 1996), p. 51.

16) G. von Rad, *Deuteronomy A Commentary* (SCM Press, 1966), p. 50.

17) S.M. Hirsch, *The Pentateuch Volume V Deuteronomy* (Judaica Press, 1989), p. 60. 그의 오경 주석서들의 최초 출판 시기는 1867-78이다.

근래에 메릴(E.H. Merrill)도 히르쉬와 같은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분배’란 말에 대해 많은 해석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 구문과 창세기 창조구문의 문맥을 놓고 볼때, 이 구절에서 저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인간을 통제하는 신격체로서가 아니라 사실상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게 보인다. 그것들은 세계 어디서든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히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기능하도록 분배되었다(*apportioned*, 즉 *chalaq*[sic]) — 그 기능은 곧 낮과 밤을 나누는 것, 시간의 분할을 나타내는 표지 등이다. 예배대상으로서의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 자체는 인류의 공통 자산으로서 인류를 섬기도록 지음받았다고 모세는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석한다.¹⁸⁾

같은 맥락에서 라이트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천체숭배가 하나님에 의해 긍정적으로 기획되었다고 본문이 실제로 확증해 주는지 누구든 의심할 수 있을 것이다. 19절의 마지막 절은 단순히 ‘너희 하나님 야웨께서 모든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에게 할당하여 주신 것을 너희가 예배한다 (and you worship what Yahweh your God assigned to all the peoples under all the heavens)’라고 번역할 수 있다. 이 문장이 ‘그들이 예배하도록(for them to worship)’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그와 같은 말들은 본문에 있지 않다. 앞서의 도치된 창조 설화의 문맥 속에서 보면, 그저 하늘의 빛들이 창세기 1:14-18에 서술된 목적을 위해 인류 전체에 주신 선물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해볼 수 있다.”¹⁹⁾

끝으로 비제만(D.J. Wiseman)이 TWOT에 수록한 “*할라크(chalaq)*” 해설 내용을 들어보자. 그는 하나님이 천체를 예배 대상의 신격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안내역으로 주셨다고 밝힌다. “모든 민족들에게 (숭배 위한 신격체로서가 아닌) 안내역으로 해와 달과 별들을 뒤편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신명기 4:19).”²⁰⁾ 이어서 그는 “몇몇 유대인 주석가들은 이 구절이 이방인 가운데 우상숭배를 용인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18) E.M. Merrill, *Deuteronomy* (Broadman & Holman, 1994), pp. 123f.

19) C.J.H. Wright, *New International Biblical Commentary, Deuteronomy* (Hendrikson, 1996), p. 52.

20) TWOT vol. 1, 상계서, p. 670.

6. 맺는말

문법적으로, 성경신학적으로 살펴볼 때, 신명기 4:19에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위해 천체 숭배를 정해 주셨다는 해석을 얻는다는 결론은 합리적이지 않다. 천체가 점성술적 기능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다는 이해는 비평적 객관성을 지니고 본문을 문법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아니라 인간의 공상이나 추측에 편향된 자의적 해석이라 하겠다. 근래에 들어 뉴에이지 운동 등으로 점성술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되고 있는데 이방 민족들에게 천체 숭배를 허용하고, 정해 주셨다는 해석은 뉴에이지 운동과 상통하는 해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문 해석 작업에 어떤 인위적 굴절이 개입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 시대의 정치적, 사회-문화적, 신학적 의제나 흐름이 본문 이해를 굴절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본문이 말하는 바 그대로를 들으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도 점성술 등을 통해 수많은 별들이 하나님 대신 경배를 받고 있듯 바른 성경 해석을 그르치는 많은 흐름들이 있다 하겠다.